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소고 -한·인도 은행 효율성 분석*

박 현 재**

-
- I. 서 론
 - II. 선행문헌 연구
 - III. 한·인도 교역 및 인도은행 산업 현황
 - IV. 한·인도 은행의 효율성 분석
 - V. 결 론
-

주제어 : 은행산업, DEA, 인도진출

I. 서 론

한국은 경제성장을 수출을 통해 이루고 있어 무역은 한국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시작으로 걸음마를 시

* 본 연구는 2012년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술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또한 이 논문은 제 46회 한국무역상무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前 LG 생명과학 인도법인장)

작한 이래 2011년 수출 5000억 달러를 넘어서 총 무역규모 1조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로서 명실 공히 한국은 수출 세계 7위, 무역대국 9위에 들어섰다. 앞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8개 국가 뿐이다. 이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쳐온 지 50년 만에 이룬 대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00년 세계 12위에서 2009년에 19위로 하락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한국의 누적 서비스 적자는 약 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상품수지 흑자가 1863억달러인 것을 생각할 때 상품을 수출하여 얻은 이익의 약 43%가 서비스 부문의 적자로 인해 줄어들었다. 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컨설팅, 회계 법률 등의 사업서비스 부문, 여행,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 3개 분야의 적자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데 이 분야에서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제로섬(zero sum)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된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후 CEPA)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은 대 인도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어 인도시장은 이익 측면에서도 한국에게 있어 결코 놓칠 수 없는 알토란같은 시장이다.

〈표 1〉 한국의 對인도 무역수지 년도별 추이 (단위 ; 백만 US\$)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6,600	8,977	8,013	11,435	12,654	11,921
수입	4,624	6,581	4,142	5,674	7,894	6,924
수지	1,976	2,396	3,871	5,761	4,760	4,997

출처 ; stat.kita.net

하지만 한·인도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80% 이상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제조업이 투자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한·인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서비스 업종의 진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한·인도 은행의 효율성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한국 은행들의 인도 진출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회사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인도 은행 산업 진출을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CEPA를 계기로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국 기업 진출이 늘어나면,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을 하기 위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인도의 주요 은행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 은행의 인도 진출을 촉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선행문헌 연구

그동안의 인도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윤동진 2001), 한국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서대교·신종협 2011), 인도 정보 통신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권오성 2004), IT 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이명무·김윤호 2008), 콘텐츠 산업의 인도 진출 전략(황해두·표옥연 2007)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CEPA에 대한 연구이다. CEPA의

효과에 대한 연구(명진호 2009), CEPA 체결로 인한 투자 애로 해소에 관한 연구(김민정 2009), CEPA로 인한 서비스시장 효과(권혁재 2009)에 대한 고찰, 국내 중소기업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인식연구(이순철 2010) 등이 있다. 셋째, 인도 현지 경영에 대한 연구이다. 노무관리나 의사결정 권한이양에 대한 연구(김봉훈 2009), 해외 자회사 인재 선발전략(박현재 2011), 인도상인과의 협상전략(박현재 2009) 등이 있다.

DEA를 이용한 은행의 효율성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를 보면, 홍봉영과 김성아(2007)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오대원(2007)은 중국의 4대 국유은행과 8대 민간 상업은행에 DEA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도출하였다. 최승빈(2003)은 29개국 OECD 회원국들의 은행산업을 비교하여 한국의 은행산업이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Mlima(1997)는 스웨덴 은행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Schaffnit 등(1997)은 캐나다 은행 지점들의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Ataullah 등(2004)은 은행 자유화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은행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Dwivedi와 Charyulu (2011)는 개혁기 이후 인도은행들의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DEA를 적용하여 각국의 은행산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하지만 인도 은행산업 진출을 목적으로 한·인도 은행 효율성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 산업의 교역이 무역의 화두로 부상되고 있는 지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은행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여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은행산업계 측면의 해외 실무책임자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Ⅲ. 한·인도 교역 및 인도 은행산업 현황

1. 한·인도 교역 현황

대인도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1996년 현대 자동차의 인도 진출을 계기로 직접투자가 시작되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은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

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 직접투자 중 대인도 투자는 1%대에 머물고 있어 아주 저조한 형편이다.

〈표 2〉 한국의 대인도 FDI (단위: 백만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FDI (신고)	21	49	112	151	336	289	345	190	649	348
FDI (투자)	17	41	91	99	293	189	241	199	440	212
전체 FDI 중 비중(%)	0.4	0.6	1.3	0.9	1.4	0.8	1.2	0.8	1.7	1.2

출처 ; 수출입은행

현재 인도에는 자동차, 전자, 철강 그리고 화학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0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제조업 비중이 약 82%, 대기업 비중이 약 80%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대, 삼성 그리고 LG 등 여러 한국 기업들은 인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래 언급된 〈표 3〉에서 보듯이 최근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투자는 다른 선진 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주요 국가 對인도 투자 누적금액 (단위 ; U\$백만, 2000.4 ~ 2012.1)

순위	국가	누적투자금액	비중(%)
1	모리셔스	63,146	39
2	싱가포르	16,203	10
3	일본	12,095	8
4	미국	10,362	6
5	영국	9,389	6
14	한국	884	0.6

출처 ; 인도상공부 사이트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인도에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는 서비스 분야, 통신 분야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분야 투자 비중이 20%에 이를 정도로 외국 기업들은 인도의 서비스 업종 투자에 매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분야별 대인도 투자 현황 (단위: US\$백만, 2000.4~2012.1)

순위	분야	누적금액	비중(%)
1	서비스	31,971	20
2	통신	12,547	8
3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11,107	7
4	부동산	10,973	7
5	건설	10,867	7

출처 ; 인도 상공부 사이트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래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도에 진출한 대표 한국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등 주로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며, 은행업종에서는 신한은행이 거의 유일한 투자사례이다. 따라서 한국도 하루 빨리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은행 등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표 5> 투자금액 측면에서 인도 진출 상위 20대 한국 기업

	회사명	투자년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천달러)
1	현대자동차	1996	자동차 생산	730,000
2	LG전자 인도법인	1997	가전 및 반도체	650,000
3	현대차 영업총괄	1996	자동차 및 부품	240,000
4	현대모비스	2005	자동차 부품 제조	184,000
5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1996	전기·전자	150,000
6	비스테온(한라공조)	1998	자동차 부품	100,000
7	화신 인디아	2002	자동차 부품	70,000

	회사명	투자년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천달러)
8	LG전자 푸네법인	2004	전기·전자	54,000
9	신한은행	2006	금융	50,000
10	에스엘루막스	1997	자동차 부품	48,000
11	LG화학	1997	석유화학	35,000
12	일진오토보티브	1997	자동차 부품	25,200
13	미래에셋	2007	금융(펀드)	21,000
14	한일리어	1997	자동차 내장재	20,100
15	스타리온 인디아	2001	전자부품	20,000
16	경신마티슨	1997	자동차 부품	20,000
17	한진해운	2007	운송	20,000
18	롯데 인디아	2004	과자류	19,035
19	NVH인디아	2006	자동차 내장재	18,000
20	포스코 푸네법인	2005	철강 및 금속	14,543

출처 ; KOTRA, 2010

한마디로 한국기업들의 인도 서비스업종 진출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 향후 많은 연구와 탐색이 필요하다.

2) 인도 은행산업 현황¹⁾

인도 은행산업은 현재 인도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며, State Bank of India로 대표되는 공공은행, ICICI Bank, HDFC Bank와 같은 민간은행, Citi Bank, HSBC Bank와 같은 외국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7%~9%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경제를 고려할 때 2050년경에 미국 경제규모의 약 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11억 인구의 거대국가인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행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로 추정되고 있으

1) 한국금융연구원, 「주간브리프」 19권 43호 2010.10. 「주간브리프」 20권 25호 2011.6.

며, 현재 3억명 정도인 중산층 인구는 20년 이내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은행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인도 전체 인구 중 약 40% 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불카드 보유비율은 13%, 신용카드 보유비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약 8,900만 가구에 달하는 농촌가계 중 51.4%는 금융기관의 신용혜택을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 5만 루피 이하의 농촌가계 중 13% 만이 은행을 통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인도 부유층들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과 프라이빗뱅킹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높은 휴대전화 이용률 및 모바일 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모바일 뱅킹서비스의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인도 진출을 원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완전자회사는 최소자본금 30억 루피(약 7천만 달러)이상,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이사회 50% 이상 인도 국적자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 민간은행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인도중앙은행의 허가 하에 최대 74%까지 가능하다.

한편 인도중앙은행은 인구 2,000만명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금융기관 설치, 저소득층 대상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확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확대 도입 등을 구상 중이며, 민간은행에 대한 지역별 영업면허도 확대 해줄 방침을 가지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지점설립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데, 현지법인 완전자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는 아직 1건에서 2건 정도로 미미하다. 이 중 인도 시장에 진출한 지 15년이 넘는 영국의 Standard Chartered는 외국계 은행들 중 가장 많은 9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인도의 뭍바이, 뉴델리, 벨로르 등 3개 도시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을 검토하고 있어,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기존대로 지점설립 상한 규제를 적용받으나, 현지법인 자회사 형태로 진출했거나 전환하는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지점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인도에서 대출업무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나, 현지법인 자회사는 내국 회사로 간주되는 만큼 세제, 대출여력, 자금운용, 대출영역 등에 있어서 인도 국영은행이나 민간은행들과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도 은

행들은 단일 기업 및 그룹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15% 및 40%를 초과하여 여신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는데,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 자회사들의 경우도 이 제한에 따라 자금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외국계 은행들은 장기적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현지법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소매금융업무 기반을 확충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IV. 한·인도 은행의 효율성 분석

1. DEA 개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이란 선형계획법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통계학적인 회귀분석법과는 달리 구체적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대상의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효율성 프론티어를 도출하는 비모수적 접근방법이다²⁾. 여기서 평가대상이 되는 단위를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 DMU)라고 부른다. DEA에서의 효율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효율성(relative efficiency)이다. 즉, 가장 우수한 DMU 또는 효율적 DMU를 참조집합(reference set)으로 하여 이들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평가 한다³⁾.

2. DMU 선정 및 DEA에 의한 효율성 분석

한국은행이 금융분야 전문잡지 ‘더 뱅커(The Banker)’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자본⁴⁾ 기준으로 2010년 세계 1000대 은행을 조사한 결과 세계 최

2) Mehrabian S., Alirezaee, M.R. & Jahanshahloo, G.R., "A Complete Efficiency Ranking of Decision Making Unit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Computational Optimization and Applications, Vol.14, 1999, pp.261-266.

3) Wilson, P.W., "Detecting Influential Observations in DEA,"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Vol.6, 1995, pp.27-46.

4) 은행의 영업역량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으로 구성

대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차지했고, JP모간체이스, HSBC홀딩스, 씨티그룹, 미쓰비시금융그룹이 뒤를 이었다. 세계 1000대 은행 가운데 아시아 지역 은행은 350개에 달했고 그 중 일본이 103개, 중국 101개, 인도 32개, 대만 23개, 말레이시아 13개, 태국 11개로 한국의 9개보다 많았다. 한국에 있는 은행 중 세계 1000대 은행에 속한 은행은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농협,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9개 은행 중 성격이 다른 대구은행, 부산은행 그리고 농협을 제외함과 동시에 최근에 합병이 결정된 외환은행을 배제한 5개 은행을 DMU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인도의 은행도 DMU에 포함된 한국 은행들과 유사한 영업 행위를 하는 인도 Top 5 사립은행(Private bank)을 DMU에 포함시켰다. 또한 각 DMU의 변수값은 인도은행의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 2010.4-2011.3 자료와 2011.4-2012.3 자료를 이용하였고, 한국의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10년과 2011년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표 6〉 대상 DMU

DMU
Yes bank
Axis bank
Federal bank
HDFC bank
ICICI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DEA 분석결과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나

 된다.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EA 분석을 2단계로 실시하였다. 즉, 2010년과 2011년 2개년에 대해 은행들의 효율성 측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투입물과 산출물을 각각 다르게 투입하여 2단계 분석을 한 후,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1) 1단계 DEA 분석

〈표 7〉 DEA 분석을 위한 투입물과 산출물

투입물	산출물
비용대비 임금비용, 이자비용	예수금, 총자산이익률(ROA)

1단계 DEA 분석은 산출물을 고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효율성 분석 결과(2010년)

DMU	TE	PTE	SE
Yes bank	1.0000	1.0000	1.0000
Axis bank	0.8617	0.8933	0.9646
Federal bank	1.0000	1.0000	1.0000
HDFC bank	0.8507	0.8638	0.9849
ICICI	0.4988	0.5978	0.8344
신한은행	1.0000	1.0000	1.0000
우리은행	1.0000	1.0000	1.0000
국민은행	1.0000	1.0000	1.0000
하나은행	0.9372	1.0000	0.9372
기업은행	0.5093	0.8388	0.6072

* TE (Technical Efficiency), PTE(Pure Technical Efficiency), SE(Scale Efficiency)

〈표 9〉 효율성 분석결과(2011년)

DMU	TE	PTE	SE
Yes bank	1.0000	1.0000	1.0000
Axis bank	1.0000	1.0000	1.0000
Federal bank	1.0000	1.0000	1.0000
HDFC bank	0.9713	1.0000	0.9713
ICICI	0.7682	0.7699	0.9978
신한은행	1.0000	1.0000	1.0000
우리은행	0.9350	0.9359	0.9990
국민은행	1.0000	1.0000	1.0000
하나은행	0.9953	1.0000	0.9953
기업은행	0.5448	0.6756	0.8064

〈표 10〉 PTE=1 & SE <1인 DMU의 규모수익(2010년)

DMU	$\sum \lambda_j$	규모수익
하나은행	0.64	IRS

TE는 효율성이 1을 보이는 DMU에 비해 산출물/투입물의 상대적 사용량을 나타내는 값이며, PTE는 규모에 대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측정 한 운영효율성이다. 그리고 SE는 규모 효율성으로 TE를 PTE로 나눈 값이다. SE=1인 경우에는 TE와 PTE가 동일하여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불변으로 CRS(constant returns to scale)로서 최적규모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규모의 효율성 값이 1보다 작다고 해서 반드시 규모를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PTE=1 & SE<1인 경우에는 투입의 증감 여부를 규모수익(RTS)을 통해 결정한다. 즉, $\sum_{j=1}^n \lambda_j < 1$ 이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 IRS)의 상태로 투입규모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sum_{j=1}^n \lambda_j > 1$ 의 경우에는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 ; DRS)상태로 현재의 규모가 과다한 투입요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분석에서 2010년의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 값 1을 보이고 있는 은행은 인도의 Yes bank, Federal bank, 그리고 한국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은행은 규모의 효율성 값도 1을 보이고 있어, 최적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은행들이 기술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입물에 해당되는 비용 대비 종업원 임금율과 이자비용을 개선해야 한다. <표 9>에서 보듯이, 2011년의 분석에서 기술효율성 값 1을 나타내는 은행은 인도의 Yes bank, Axis bank, Federal bank 그리고 한국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었다. 이들 중 인도의 Yes bank, Federal bank 그리고 한국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규모의 효율성 값도 1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높은 상대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은행은 <표 10>과 같이 규모수익체증 상태를 보이고 있어, 투입규모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인도은행들의 경우에는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의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해야 상대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2단계 DEA 분석

<표 11> DEA 분석을 위한 투입물과 산출물

투입물	산출물
비용대비 임금비율, 자본	자산, 당기순이익

2단계 DEA 분석은 투입물에는 비용 대비 임금비율과 자본을, 산출물은 은행의 매출과 이익에 해당되는 자산과 당기순이익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투입물을 고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2〉 효율성 분석 결과(2010년)

DMU	TE	PTE	SE
Yes bank	0.1312	0.1335	0.9828
Axis bank	0.5945	1.0000	0.5945
Federal bank	0.1079	0.1080	0.9991
HDFC bank	0.5856	0.5856	1.0000
ICICI	0.7147	0.7683	0.9302
신한은행	1.0000	1.0000	1.0000
우리은행	1.0000	1.0000	1.0000
국민은행	0.9155	1.0000	0.9155
하나은행	1.0000	1.0000	1.0000
기업은행	1.0000	1.0000	1.0000

* TE (Technical Efficiency), PTE(Pure Technical Efficiency), SE(Scale Efficiency)

〈표 13〉 효율성 분석결과(2011년)

DMU	TE	PTE	SE
Yes bank	0.1453	0.1483	0.9797
Axis bank	0.6418	0.7605	0.8439
Federal bank	0.1203	0.1226	0.9812
HDFC bank	0.6840	0.7341	0.9318
ICICI	0.7608	0.7608	1.0000
신한은행	1.0000	1.0000	1.0000
우리은행	1.0000	1.0000	1.0000
국민은행	1.0000	1.0000	1.0000
하나은행	1.0000	1.0000	1.0000
기업은행	0.9661	1.0000	0.9661

따라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 분석의 2010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효율성값 및 규모의 효율성 값 1을 보이고 있는 은행은 한국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은행은 이에 해당된 은행이 없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은행들이 상대적 효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산출물에 해당되는 당기순이익과 자산 증가에 노력하여야한다.

2011년의 분석결과는 <표 13>에 나타나있다.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 값 모두 1을 보이고 있는 은행은 한국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에도 인도은행은 이에 해당되는 은행이 없었다. 이는 인도은행들이 상대적으로 한국 은행들에 비해 은행의 매출액과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도은행들의 경우에는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위해 자산과 당기순이익 증대에 노력을 경주해야 상대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표 14> DEA 분석 결과 (종합)

	2010년에 인도 은행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보유한 한국 은행	2011년에 인도 은행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보유한 한국 은행
1 단계(비용대비 임금비용, 이자비용 측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2단계(자산, 당기 순이익 측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로 실시된 DEA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은행 중 인도 은행 대비 상대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즉, 신한은행은 인도은행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진출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한은행이 2006년에 한국 은행들 중 최초로 인도에 투자하여 진출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한은행의 인도투자와 진출은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상기 종합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인도 투자와 진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선박, 반도체 등 제조업 품목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에서 품목 및 업종의 다변화는 필연적인 일이다. 한·인도 교역의 경우에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인도 진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비스업 중 은행업종의 인도 진출을 검토하기 위해 한·인도 은행의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인도의 대표적인 민간은행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보유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경우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한은행은 이미 인도의 뉴델리 등 3개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여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영업형태 보다는 투자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진출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인도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인도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인도 자동차 할부 금융에 뛰어들거나,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값비싼 전자제품에 대한 할부 금융도 매력적인 사업일 수 있다. 여기에 인도 지점 수를 확대하여 소매금융에 진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은행의 경우에도 2012년 4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한국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아직 인도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대출 관련 영업 능력을 활용하여 활력을 보이고 있는 인도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진출의 전 단계로 산업은행의 경우처럼 인도에 1인 주재원 파견을 통해 1년~2년 간 현지 시장조사를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 은행들이 인도에서의 적극적인 영업을 미루면, 우리보다 앞서 진출하여 있는 미국 등 선진은행들의 시장잠식으로 더 이상 한국 은행들이 인도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은행들은 더 이상 성장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시장에 연연하지 말고, 한국 은행들의 핵심역량을 토대로 적극적인 인도 시장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 이상 규제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한국 은행의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 혜택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내 인도의 은행산업 분야에서도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자동차 같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져 진정한 글로벌 토종은행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권오성, “인도의 통신 규제 정책과 시장 분석”, 「국제무역연구」 제 10권 제2호, 2004, pp.133-156.
- 권혁재, “CEPA 체결 : 서비스 시장에 활력 줄 것”, Chindia Journal 37,2009.
- 김민정, “CEPA 체결 : 대인도 투자 애로 해소 기대”, Chindia Journal 37,2009.
- 김봉훈, “CEPA 발효 앞둔 한인관계 점검”, Chindia Journal 32, 2009.
- 명진호, “CEPA 체결, 인도시장을 다시본다 - 인도관세를 높여 CEPA의 증장기 효과 클 것”, Chindia Journal 37,2009.
- 박현재, 「성공적인 국제거래를 위한 인도 상인과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 43권 제1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p.457-480., 「해외 자회사 인재 선발 전략」, 『무역학회지』 제 36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1, pp.163-186.
- 서대교·신종협, “인도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 전략”, 「인도연구」 제 16권 제1호, 2011.
- 이명무·김윤희, “국내기업의 친디아 IT산업 진출 방안”, 「인도연구」 제 13권 제1호, 2008, pp.95-138.
- 이순철 “국내 중소기업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인식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10, pp.107-129
- 오대원, “중국 상업은행 효율성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1권제1호, 2007.
- 임목삼, “한·인도 CEPA 수출입유망품목의 효과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 49권, 2011.2., pp.545-566.
- 윤동진, “현대자동차 해외진출사례”, 「국제경영학회지」 제32권, 2001,33-60.
- 최승빈, “OECD 국가들의 은행산업 효율성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재무연구」, 제16권제1호,2003.
- 홍봉영·김성아, “국내은행의 효율성 및 관련 요인 분석”, 지식연구, 제5권 1호, 2007.
- 황해두·표옥연, “한국 콘텐츠 산업의 친디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pp.433-462.

- Ataullah, A., Cockerill T. and Le, Hang,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bank efficiency :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a and Pakistan," *Applied Economics*, 36(17), 2004.
- Dwivedi, A.K. & Charyula D.K., "Efficiency of Indian Banking Industry in the Post-Reform Era," IIM Research & Publication, 2011.
- Mehrabian S., Alirezaee, M.R. & Jahanshahloo, G.R., "A Complete Efficiency Ranking of Decision Making Unit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Computational Optimization and Applications*, Vol.14, 1999, pp.261-266.
- Mlima, A.P., "Efficiency of Swedish Banking Industry : An Application of DEA," Fifth European Workshop on Efficiency & Productivity Analysis, Copenhagen, 1997,
- Schaffnit C., Rosen, D. and Paradi, J.C., "Best Practice Analysis of Bank Branches : An Application of DEA in a Large Canadian Bank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s Research*, Vol.98, 1997, pp.269-289.
- Wilson, P.W., "Detecting Influential Observations in DEA,"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Vol.6, 1995, pp.27-46.
- 인도상공부 사이트 <http://commerce.nic.in>

ABSTRACT

The Study on Entering Indian Banking Industry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Park, Hyun Cha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Korean main banks may have efficiency against Indian major banks. For this purpose, DEA analysis is used for checking relative efficiency levels.

The study proposes, as a result, Shinhan bank, Woori bank and Kookmin bank in Korea may consider entering into Indian banking industry because these three banks have relative efficiency against main Indian banks like Yes bank, ICICI bank.

The results of the study comply with actual facts since Shinhan bank already came to Indian banking market at first. Shinhan bank have three branches like Mumbai, NewDelhi etc. Wooribank also entered into India in 2012 as second case among Korean banks.

But Kookmin bank did not come to India yet so they should consider coming to India. As a preliminary measures, they can send one person as a expatriate to survey the Indian banking industry like KDB in Korea. If they can utilize their core competence in real estate field at India, they may positively think about entering into India as quickly as possible.

Although many Korean firms have penetrated into Indian market recently, they almost belong to manufacturing sectors so Korean service firms like banks should consider more coming to India because the most hot sector for FDI in India remain service sector and many foreign service firms already rush to Indian market. If Korean service firms like banks delay FDI further, good market opportunities would not be there any more.

DEA analysis can be one of tools to check investment feasibilities. Since India becomes a compulsory subject for most of Korean firms, to increase possibilities of success in India, such Korean banks may consider applying fast-mover investment strategies to the Indian business fields.

Key Words : Service sector, Banking industry, DEA, India